

설교자 칼뱅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최 승 선

설교자 칼뱅에 관한 연구

지도 박 경 수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최 승 선

최승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박 경 수 인

부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년 2월

감사의 글

수십 년 동안 입어왔던 옷을 벗어 버리고 목회자로 태어나는 훈련소의 탈의장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 옷이 불편했습니다. 새 옷은 저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입고 다니기가 힘에 겨웠습니다. 이 옷은 잠을 잘 때에도 입고 자야 했고, 자주 빨아야 했습니다. 옷이 때로 얼룩진 곳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가끔 새 옷에 구멍을 내 보기도 했습니다.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불에 그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면 옷을 벗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며, 아낌없이 논문을 지도해주신 박경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있는 아들의 건강과 학업, 교회사역을 걱정하시며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신대원 100기 전도사님들과 저에게 설교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신 온누리교회 정형권 목사님, 평촌교회 초등부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의 본향인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실 설교자 장 칼뱅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2007년 2월 최승선

목 차

I. 서론	1
A. 동기 및 목적	1
B. 연구방법	4
II. 설교자 칼뱅(Calvin the Preacher)	6
A.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	6
B. 칼뱅의 설교들	9
C.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	12
III. 설교의 교리(Doctrine of Preaching)	15
A.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	15
B. 칼뱅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	18
1. 믿음에 대한 이해	18
2. 하나님에 대한 이해	19
IV. 설교의 방법(Method of Preaching)	23
A. 성경에 대한 주해	23
B. 주해에 의한 적용	26
C. 강해설교	29
V. 설교의 스타일(Style of Preaching)	33
A. 단순해야 한다.(Simplicity)	33
B. 간결해야 한다.(Brevity)	35
C. 명확해야 한다.(Clarity)	36

D. 친밀해야 한다.(Familiar)	37
E. 평이해야 한다.(Easy & Understandable)	38
F. 교육적이어야 한다.(Didactic)	39
G. 생동적이어야 한다.(Liveliness)	41
H. 논쟁적이어야 한다.(Polemical)	42
I. 진지해야 한다.(Serious & Solid)	44
VI. 결론	47
참고문헌	50

I. 서론

A. 동기 및 목적

칼뱅은 “우리의 경건과 신학의 원조”¹⁾이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칼뱅에 대해 그렇게 인정해 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정작 목회 현장에서는 아니 신학교에서조차도 칼뱅의 경건이나 신학, 그리고 신앙에 대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말로는 칼뱅이 위대하고, 뛰어난 신학자라고 너나할 것 없이 얘기를 하지만 칼뱅의 어떤 점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진다. 앞의 질문에 대해 칼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빼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강요』를 저술한 사람이라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칼뱅은 강요를 쓴 위대한 신학자 이전에, 교회를 돌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쓰기 위해 칼뱅에 대해 살펴보면서 필자는 칼뱅이라는 목회자를 존경하며 신뢰하게 되었다. 그간에 알고 있었던 칼뱅에 대한 흐릿한 지식들이 갈아엎어졌고, 정말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던 그의 모습 앞에 숙연해 지게 되었다. 특히 칼뱅의 설교와 설교자로서의 칼뱅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면서 그의 설교 방법과 스타일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설교자로서 그의 모습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또한 매 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본인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칼뱅에 대해 사실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칼뱅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한 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딱딱하고, 엄격하며, 자기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인식해 왔던 점 등이 그렇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칼뱅의 설교와, 설교자로서의 칼뱅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그간의 잘못 인식되어 왔던 점들을 재고하고, 설교자 칼뱅에 대해 재조명해

1) 이수영, “인간 장 칼뱅,” 『교육교회』 통권 106호 (1984. 10), 655쪽.

보고자 한다. 물론 칼뱅의 설교에 대한 연구는 진작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칼뱅 연구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 역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칼뱅에 대한 주제들이 대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칼뱅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리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필자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미숙해 보이지만 본 논문의 내용이 칼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박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칼뱅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칼뱅에 대한 논의들보다 더욱 칼뱅의 진 모습을 발견케 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목회자들에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본 논문은 칼뱅의 실천적 측면이 보다 강하게 부각된다. 칼뱅에 대한 생애나 신학적 낱양스는 잠깐 뒤로 감추어 놓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목회자 칼뱅, 특히 그의 설교 패턴을 중심으로 내용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65마일(100km) 떨어진 ‘노아용’(Noyon)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개혁자들 사이에서 제 2세대 개혁자로 명명된다.²⁾ 칼뱅이 1536년 『기독교강요』 첫 판을 26세의 나이로 출간하였을 때,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는 이미 53세의 나이로 죽음을 10년여 남짓 남겨둔 상태였다.³⁾ 칼뱅의 학적은 파리의 마르쉬 대학(Collège de la Marche)의 코르디에(Mathurin Cordier)로부터 라틴어를 배우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몽테귀 대학(Collège de Montaigu)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몽테귀 대학은 정통주의의 요새로 악명이 높았다. 이 대학은 “16세기의 가장 저명한 인문주의의 왕자 에라스무스,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뱅, 가톨릭 부흥 운동의 주도자 로욜라(Ignatius Loyola, 1491-1556)를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다.⁴⁾ 그 후 칼뱅은 아버지의 권유로 파리를 떠나 1528년부터 오를레앙(Orléans)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 대학에서 법학사와 법학 박사학위(1532년)를 받게 된다. 그 후 칼뱅이 처음 제네바를 방문하게 되는 1536년까지 칼뱅에게는 크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그의 처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1532년)이 나왔고, ‘영혼의 잠,’(1534년)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이

2) John Calvin, *John Calv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5), 1.

3) 위의 책.

4)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18쪽.

출시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칼뱅의 회심(conversion)이 있었다.

칼뱅이 교회를 맡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그의 제네바 시절은 두 시기로 구분 해볼 수 있다. 처음은 이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의 요청으로 1536년부터 1538년 4월 23일까지 제네바에서 머물렀던 기간이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doctor)로, 그리고 종교개혁자로 활동을 했지만 시의회와의 성찬의식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제네바에서 파렐과 함께 추방되었고, 부처(Martin Bucer, 1491-1551)의 초청으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서 머물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제네바의 요청으로 다시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고, 칼뱅은 그가 숨을 거뒀던 1564년까지 그곳에서 이방인 목회자로서 제네바와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된다. 그가 제네바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칼뱅의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하며 했던 설교들이 현재 남아있는 그에 대한 모든 설교들이기 때문이다.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칼뱅이 시작했던 것은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제정하여 교회를 모태로 한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목회사역이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많은 시련과 고투 끝에 1554년 선거 때가 되어서야 제네바를 그가 원했던 의도(하나님의 말씀대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 칼뱅은 최악의 상황에서 개혁을 감행했던 목회자다. 그는 제네바사람들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정서적 반감을 감수해야 했고, 16세기 역사적 토양에서의 개혁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칼뱅의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교회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그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교회였다. 그가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은 개혁의 도구와 수단이 설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서신을 통한 권면이나, 심방, 간접적 정치활동 등은 설교를 통한 목회활동을 변방에서 보조하는 역할로서 존재하던 것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칼뱅의 설교와 설교자 칼뱅에 대해 알아봄으로

써 목회자로서 교회현장에서의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다 생동감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설교 방법과 스타일을 통해 그를 알아 가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방법

칼뱅의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선 그가 설교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과, 그가 생각했던 설교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가 칼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내용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설교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와 자세 역시 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과 그의 설교들, 그리고 그의 설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설교자 칼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성경관이 중요하다. 종교개혁자답게 성경을 떠나서는 그의 신학과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삶과 저서, 그리고 설교가 말해 주듯이 모든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그는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교 또한 성경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청중들의 삶에 이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에게 있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문보다 더욱더 강력한 파워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본문을 실제 청중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설교에 임했던 그의 생각과 함께 설교 속에 나타난 그의 신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볼 것이다.

그의 설교 패턴은 기본적인 강해설교였다. 따라서 설교 방법에 있어서 그의 설교가 가지는 기본적인 패턴을 중심으로 기술해 볼 생각이며, 무엇보다도 설교 스타일에 있어 그가 설교를 고안하며 작성하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화이트헤드는(Alfred North Whitehead)는 그의 저서 『*The Aims of Education*』에서 “스타일이 능력을 형

성한다”고 말했다.⁵⁾ 설교의 스타일은 설교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스타일 속에는 설교자의 태도와 자세, 가치관, 어법, 경험, 신학, 사상, 청중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다. 다시말해 칼뱅의 설교 스타일은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적어도 설교자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하신)에서부터 시작해,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며 전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한 가늠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살펴 볼 그의 설교 스타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칼뱅에 대해 잘못 인식해 왔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Alfred North Whitehead,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Free Press, 1967), 12.

II. 설교자 칼뱅(Calvin the Preacher)

A.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

칼뱅은 설교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신”이며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다.⁶⁾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야말로 신적 행위이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그는 확언한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 칼뱅의 생각이다.⁷⁾ 따라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강해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설교자는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또한 필요했다. 이렇게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설교자 자신의 성경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⁸⁾

설교자란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⁹⁾ 칼뱅에게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시대를 넘어 진리를 영원토록 보존하고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공적 기록이며,¹⁰⁾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이자,¹¹⁾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교사였다.¹²⁾ 칼뱅에게 있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떤 자연 현상이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경을 이루어 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칼뱅의 저서나 그에 관하여 써 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성경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

6)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 1990), 210.

7)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94), 124쪽.

8)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1990), 61쪽.

9) 위의 책, 62쪽.

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상)』,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81쪽.

11) 위의 책, 79-80쪽.

12) 위의 책, 83쪽.

지 금방 알 수 있다. 그의 글들은 금방이라도 성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그리고 칼뱅의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그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칼뱅은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 성경의 모든 책들을 주석하였다. 성경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요, 신성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스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그가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¹³⁾에서의 설교자 훈련에서 그 목표가 분명히 드러났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칼뱅의 생각은 “성경을 믿어진 말씀(the Word believed)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⁴⁾ 설교자에게 성경의 지식은 지적인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과 사랑이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연구의 수단과 방법들도 사용되어야 했다.

또한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는 목사의 본질적인 의무였기 때문이다. 목사가 해야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다. 칼뱅은 27년 동안 목사로 일했다. 이 기간은 그의 생애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¹⁵⁾ 그의 목회활동 기간 가운데 목사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물론 칼뱅은 교회의 목사로서 설교뿐만 아니라 심방, 대화와 서신을 통한 권면, 교회의 개혁 작업 등 목회 활동의 세밀하고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친구, 동역자로서도 참으로 훌륭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칼뱅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며,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한 인간으로서도 손색이 없었다.¹⁶⁾ 그렇지만 자신이 목사라는 직분을 지닌 한 설교

13)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설교자들을 위한 훈련기관으로는 르네상스시대의 어느 대학보다도 우수했고, 현대의 학교나 대학, 또는 신학대학의 학과 과정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한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신학의 모판이 되었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의 영적, 지적인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다.

14)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64쪽.

15) Richard Stauffer, 『인간칼빈』, 박건택 역 (서울: 엠마오, 1983), 73쪽.

16) 위의 책, 96-97쪽.

자라고 하는 인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설교라는 우선적 과업 앞에서 다른 어떤 일단의 목회적 노력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까지 그는 말했다.¹⁷⁾

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진다고 했다.¹⁸⁾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엡 4:11)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으며...”¹⁹⁾라고 말한다. 칼뱅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관이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했고,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까지 자라야 했다. 이렇듯 우리가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교회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칼뱅이 교회는 사도적이다(apostolicam Ecclesiam)라고 말할 때에도, 황대우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간주하여 교황이 사도적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칼뱅은 여기에 반대하여 교회의 사도성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교리의 연속성(successio doctrinae)측면에서 이해했다고 말한다.²⁰⁾ 다시말해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교리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하고 그들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²¹⁾ 이렇듯 칼뱅에 의하면 설교자란 사도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해가고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자란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 교육하는 자이기도 하다.²²⁾ 여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칼뱅이 가장 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주장했던 설교의 목적과도 부합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구원의 방주로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설교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본 것이다. 칼뱅은 요한복음 주석에서도 “그리스도는 성

17)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2쪽.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51쪽.

19) 위의 책, 9쪽.

20) 최윤배(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의 교재 『칼뱅: 그의 생애와 사상』 중 330쪽.

21) 위의 책.

22)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59쪽.

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정확히 알려질 수 없다.”²³⁾ “그리스도는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되고 만다.”²⁴⁾ 고 해 설교자가 교회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에 충실해야 함을 내비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공통적이면서도 이것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관한 부분이다. 설교자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직분을 맡았기에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했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졌기에 말씀을 통해 교회를 돌본다는 입장에서 설교자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직분이었던 것이다.

B. 칼뱅의 설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설교들은 1549년부터 1564년 사망하기까지의 것들이다. John H. Leith에 의하면 “칼뱅의 설교는 1549년 이후 Denis de Raguener를 대표로 몇몇의 서기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Raguener의 목록(1549-1560)에는 2,042편의 설교가 있고, 후에 263편의 설교가 추가로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설교는 1500편인데 이것은 대략 800편 정도의 설교가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뱅이 죽을 무렵 혹은 그 이후 짧은 기간 동안 780편의 설교가 출간되었다. 설교의 전체 중 874편의 설교는 『종교개혁총서』(*Corpus Reformatorum*)에 수록되었으며, 1961년 이후로 새롭게 발견된 설교들이 편집되어 『칼뱅전집보충』(*Supplementa Calviniana*)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스토페르(Richard Stauff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설교는 전체 중에 약 3분의 1정도라고 평가한다.”²⁵⁾

칼뱅의 설교들을 알아봄에 있어서 제네바에서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이

23) Ronald S.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158쪽.

24) 위의 책.

25)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06-207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 보충한 것임.

중요하다. 왜냐하면 칼뱅의 설교에 관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때는 1541년 9월 그가 제네바에 돌아간 때부터이기 때문이다.²⁶⁾ 칼뱅은 제네바에 돌아간 후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3년 전 중단되었던 성경강해를 다시 시작하였다. 1538년 부활절에 그만두었던 설교를 바로 다음날 이어서 하는 것처럼 1541년 9월에 성 삐에르 교회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²⁷⁾ 이것은 칼뱅이 교부들의 예를 따라, 그리고 훨씬 광범위하게 매 주일, 혹은 매일 성경의 전권을 한권씩 차례로 설교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칼뱅은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것으로써 나는 내가 아주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분간 설교하는 나의 임무가 방해 받은 것임을 보여 주었네” 라고 편지에 썼을 정도로 이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²⁹⁾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후 칼뱅은 많은 설교를 해야 했다. 마땅한 설교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칼뱅이 더 자주 설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칼뱅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는지 시 공의회는 곧 칼뱅의 설교 횟수를 줄이기로 결의하였다.³⁰⁾ 1549년 10월부터 칼뱅의 설교 횟수는 주당 세 번에서 매일 한 번으로 바뀌었다. 그의 일반적인 설교 관습은 일요일에 두 번(오전, 오후) 그리고 격주로 매일 설교하는 것이었다.³¹⁾ 신학 강의 역시 매 격주로 세 번이 있었다. 각 설교는 약 한 시간이 걸렸고 주중에는 구약을, 주일에는 신약을 강해하는 것이 관례였다.³²⁾

칼뱅은 그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목회 사역에 전념하였다. 칼뱅은 그의 교회 사역을 매우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다. 수많은 서신들이 이를 증명해 주듯, 그는 성도들에 대한 모든 권면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목회 활동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특별한 연구 활동이나 유용한 책들을 저술할 수 없었다.³³⁾

26)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88쪽.

27) 위의 책, 89쪽.

28)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186쪽.

29) 위의 책, 187쪽.

30)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06.

31) 위의 책.

32)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87쪽.

33)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93쪽.

그의 설교 패턴은 지속적인 성경강해였다. 한 구절에서 몇 구절 또는 많은 구절을 본문으로 택해 설교하였고, 그 책을 끝낼 때까지 계속하였다. 한 책이 끝나면 그 다음날이나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성경 강해가 시작되었다.³⁴⁾ 1549년 4월부터 그가 죽은 해인 1564년 2월까지 15년 동안 행해졌던 칼뱅의 설교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주일은 히브리서와 시편 강해였다. 그리고 평일의 설교는 예레미야서였다. 히브리서가 끝난 후 사도행전과 시편을 계속 이어서 설교해 갔고, 이 주일 설교는 1554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애가를, 그리고 1552년에는 소선지서 8권을 강해해 갔다. 사도행전과 시편 강해가 끝날 때쯤인 1554년 2월 26일부터 주중 율기 강해가 시작되었다. 물론 고난과 부활절 때에는 그 절기에 맞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시편의 본문을 택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성령강림절에는 사도행전 2장을, 성탄절 설교 때에는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택했다. 사도행전과 시편이 끝난 다음부터는 주일 아침과 오후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나갔다. 데살로니가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를, 그리고 1555년 4월에는 디모데후서가 시작되었다. 이즈음에 주중설교로는 율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시작되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는 디도서가, 그리고 1557년 2월까지 고린도전서를 설교했고, 고린도전서부터 에베소서까지는 순서대로 행해 졌다. 한편 1556년 7월 16일부터는 신명기가 끝나고 이사야서(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다. 주일설교인 에베소서가 끝나고 1559년 7월에는 복음서를 시작하였고, 그해 9월부터는 주중에 창세기가 시작되었다. 칼뱅은 복음서 설교를 시작한 이래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 주일에는 복음서(주로 마태복음)를 설교하였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자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1564년 2월 주중 설교로는 열왕기상을 마지막으로 설교하였다. 항상 병약한 몸을 이끌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회 활동에 전념한 칼뱅은 1564년 2월 6일 주일 공관복음서 설교를 끝으로 다시는 강단에 오르지 못했다.³⁵⁾

우리는 칼뱅을 평가하면서 주로 권징문제로 애쓰는 것만을 다루기가 쉽다.³⁶⁾ 하지만 이것은 칼뱅의 진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칼뱅의 사역 중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그의 모습을 빼다면 알맹이를 제외한

34) 위의 책.

35) 위의 책 93-94쪽의 내용과 200-204쪽 칼뱅의 설교 연대표를 참조했음.

36)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96쪽.

꿍데기만 다루고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칼뱅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의 많은 부분을 설교에 투자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우리가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역을, 그리고 개혁자 칼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의 설교를 연구하고 또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설교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설교강단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도 마감되었기 때문이다.

C.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

우리는 칼뱅을 제네바의 개혁자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또한 칼뱅을 개혁과정통에 끼친 역할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려 한다.³⁸⁾ 그리고 칼뱅을 생각할 때 그의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이다. 하지만 칼뱅이 죽고 난 후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뿐만 아니라 그의 교리문답, (*Catechisme*) 주석, 설교 등도 계속 확산되고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그의 설교에 대한 번역과 연구 작업은 요즘에 와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물론 칼뱅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기독교강요』는 아직까지도 그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사상을 소개할 때에도 가장 알맞은 방법 중의 하나는 『기독교강요』의 대략적인 윤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이 책은 아직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도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혀지고 있으며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작품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옳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칼뱅의 설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칼뱅을 평가할 때 그가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교의학자라는 사실을 넘어서 이 교의학자가 비길 데 없는 성서주석가요 또한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⁴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의 설교에 대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

37) 위의 책.

38)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53쪽.

39) 위의 책, 39쪽.

40) 위의 책.

유 중의 하나는 칼뱅 자신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과, 설교자로서 본인이 가졌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미 ‘칼뱅의 설교자에 대한 관념’부분에서도 살짝 내비쳤듯이 칼뱅은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칼뱅은 그의 발표문 “교회 연합적 대화의 배경 속에 있어서 설교와 성례사이의 관계”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였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되 성례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재하신다고 보았던 것이다.⁴¹⁾ 이렇듯 설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탁월한 수단이요, 도구였다.

또한 그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설교에 의해 “새로운 인간”(new man)과 “새로운 사회”(new civilization)가 만들어진다고 확신했다.⁴²⁾ 우리가 칼뱅을 제네바의 개혁자로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의 설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그는 설교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의견들을 생성케 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한 사상과 가치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설교를 통해 그러한 것들이 공유되며, 대중화될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비전들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칼뱅은 믿었다. 이러한 대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한 개혁을 주창했던 그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⁴³⁾

칼뱅은 자신이 개혁자 이전에 교회의 목회자로서 인식되기를 바랐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에서도 “제네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나장 칼뱅”이라고 말했다.⁴⁴⁾ 제네바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랐던 그였기에 그가 얼마나 설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설교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파커(T.H.L. Parker)는 그의 책 『John Calvin: A Biography』에서 칼뱅은 자신의 기본적인 사명을 주석과

41) 위의 책, 65쪽.

42)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06.

43) 위의 책.

44) 박경수, “칼뱅연구의 최근 경향”, 김인수 편,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서울: 파피루스, 2004), 335쪽.

설교를 통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⁵⁾ 또한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집필한 목적도 하나의 교리서 차원이 아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지침서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었다.⁴⁶⁾ 이처럼 우리가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칼뱅 자신이 설교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의 본질적인 답을 제공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스토페르(Richard Stauffer)가 한 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칼뱅의 설교는 강요의 신학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그의 신학에 대한 교정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⁴⁷⁾ 그리고 그의 설교는 그의 신학의 원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⁴⁸⁾ 고 했다. 스토페르의 말대로라면 칼뱅의 설교는 칼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스토페르의 이러한 견해는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를 종합하고 이를 압축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의 설교는 그의 생애 중 후반기에 기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의 설교는 그가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며 선포했던 것들이다. 당시 교회의 처지와 모습, 국내외의 상황 등 교회와 시대를 성경적 관점에서 읽고, 해석했던 것들이 그의 설교 속에는 그대로 녹아있다. 한 마디로 그의 설교 안에는 그의 인생과 사상과 신학이 한데 어우러져 숨 쉬고 있는 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뱅의 설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 치우친 칼뱅 연구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 주며, 칼뱅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케 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5) 위의 책, 327쪽.

46) 위의 책.

47)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07.

48) 위의 책.

Ⅲ. 설교의 교리(Doctrine of Preaching)

A.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 했을 때 설교가 왜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에 대해 큰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의 개념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신학적 이유가 있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은 그의 말씀 즉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⁴⁹⁾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 회중들의 귀에 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시고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들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다.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설교’는 같은 말이었다.⁵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먼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설교는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설교의 원천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며, 성경이 바로 설교의 표준이며, 근거이다. 설교가 성경의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야말로 설교와 성경은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주어질

4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상)』, 79-81쪽.

50)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261-262쪽.

때의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⁵¹⁾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반복해서 되뇌이게 했다는 것은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설교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전한다는 입장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또한 칼뱅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설교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말씀을 맡아 봉사하도록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⁵²⁾ 왕의 특사로 임명이 되어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왕의 이름을 힘입게 되는 것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이 되었다는 것이다.⁵³⁾ 하나님은 설교자를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시고, 그들을 지도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는 내적 소명의식과 그 소명이 교회의 부름으로 확인되며,⁵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이러한 전적 권위에 의해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 역시 비록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집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세례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게 된다고 한다.⁵⁵⁾

설교에서 성령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⁵⁶⁾ 이러한 의미에서 설교의 말은 성례에서의 빵과 포도주에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⁵⁷⁾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성령께 달려 있는 것처럼, 성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례의 사역은 헛되고 하찮은 것이 된다”고 칼뱅은 말한다.⁵⁸⁾ 또한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을

51)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45쪽.

52) 위의 책, 49-51쪽.

53) 위의 책, 50쪽.

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71쪽.

55)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51쪽.

56)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1.

57) 위의 책.

5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342쪽.

갖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우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⁹⁾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성경기자들에게 계시되었던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 다시 전해지며, 이것을 성령께서 확증한다는 점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⁶⁰⁾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다.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칼뱅은 성경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과 현재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⁶¹⁾ 그에게 있어서 말씀은 동적인 것이며, 변동성과 운동성, 효율성의 차원에서 관찰된다.⁶²⁾ 설교자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 아무런 능력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칼뱅은 설교된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말씀이 여전히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므로 설교를 성령께서 집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 설교는 말씀으로서 효력과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칼뱅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핵심이 되는 두개의 중요한 구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과 그 말씀이 ‘인간을 통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성경 안에 담보하셨고, 가두셨다. 그리고 성경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 인간과 대화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 하나님의 왕성한 지상 활동을 전개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말씀사역을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위치에 놓으셨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만물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59) 위의 책, 352쪽.

60)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54-55쪽.

61) 위의 책, 55쪽.

62) 위의 책.

B. 칼뱅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

1. 믿음에 대한 이해

칼뱅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어떤 운송 수단과도 같은 것이었다.⁶³⁾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견고하고도 확실한 자비와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⁶⁴⁾ 칼뱅은 말하기를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고 정의했다.⁶⁵⁾

우리는 방금 믿음에 대한 칼뱅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칼뱅의 설교에서도 믿음에 대해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설교에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칼뱅의 신학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칼뱅은 루터에 반해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이라는 원리에 굳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그는 성경의 내용을 쥐어짜서 꼭 그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문맥상의 자연스럽고도 단순한 의미에 그는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려고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말했던 성경적인 설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63) Dawn DeVries, “Calvin's Preaching,”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06-107.

64) 위의 책, 107쪽.

6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원광연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7쪽.

66)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160.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어떤 교리나 윤리적 교훈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뜻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쫓아 그분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칼뱅은 말한다.

칼뱅이 청중들에게 말했던 “믿음”은 “교리”나 “복음”과도 일맥상통한 의미에서 해석되었다.⁶⁷⁾ 그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설교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참된 교리”로 바꾸어 해석하였다.⁶⁸⁾ 그는 하나님에 대해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확대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봅시다.”라고 말이다.⁶⁹⁾ 이것은 그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폭넓고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의 대상은 신자들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칼뱅은 인식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과 참되고 순수한 교리에 대해 언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에 대한 이해

칼뱅의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가 어떻게 이해

67)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29쪽.

68) 위의 책.

69) 위의 책.

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칼뱅이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칼뱅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성, 능력, 공의이다.⁷⁰⁾

먼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칼뱅은 그의 신명기 175번째 설교에서 “encloure”(가두다)라는 동사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⁷¹⁾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키는 것은 우둔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적응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에 매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칼뱅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 비공간화 시키려고 한다.⁷²⁾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기독교의 영역에서도 칼뱅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또 별개의 차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⁷³⁾ 또한 칼뱅은 성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례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성례 밖에”(etiam extra sacramenta)라는 개념으로 그는 설교에서 화체설 교리와 맞서 싸웠고, 하나님이 빵과 포도주 안에 갇혀 있다는 신앙을 불합리하고도 조잡한 미신으로 여겼다.⁷⁴⁾

칼뱅은 하나님의 속성 중 능력을 구속적 개념에서의 생명력 있는 의지와 함께 공의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한다.⁷⁵⁾ 하나님의 능력은 불규칙하지 않고, 선하심과 지혜와 공의에 의해 균형 잡힌 능력으로서 그의 설교들 가운데에 제시되고 있다.⁷⁶⁾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선하심과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⁷⁷⁾ 칼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공의, 다시말

70)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90-97쪽.

71) 위의 책, 90쪽.

72) 위의 책, 91쪽.

73) 위의 책, 92쪽.

74) 위의 책.

75) 위의 책, 93쪽.

76) 위의 책, 94쪽.

77) 위의 책, 95쪽.

해 구속적 활동에 연결시키고 있다.⁷⁸⁾ 그는 고린도전서 6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이에게 행하시는 도움이면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⁷⁹⁾ 즉, 하나님의 의란 철저히 인간을 안심시키는 속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개념의 의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난다. 이러한 의는 욕기 설교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무죄한 자를 친다는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의”라는 말을 썼다. 이것은 자연적 규칙이나 인간의 이성을 넘어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했다.⁸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칼뱅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다루면서 정작 설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위”(位)나 “본체”(本體)라는 용어의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칼뱅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가볍게 생각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는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청중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피했을 따름이다. 그가 16세기에 가장 뜨겁고도 활기찬 논쟁을 야기 시켰던 이 교리에 대해 설교에서만 큼은 피하려고 했던 까닭을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그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휘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칼뱅의 설교 스타일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칼뱅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태도로 지켜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는 애매모호하고도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에 그냥 내어 맡기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확실히 단정 지어 설명하지 않는 한 그것을 무리해서 해석하거나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설교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에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앙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 이러한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적용과 실천적 사명을 연계시키는 차원에서만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

78) 위의 책.

79) 위의 책.

80) 위의 책, 96-97쪽.

다.⁸¹⁾

창조교리에 관한 칼뱅의 설교들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체적인 창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⁸²⁾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으로까지 연결시킨다.⁸³⁾ 하지만 특이할만한 점은 칼뱅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굳이 성경이 제공하는 자료들에 얽매이거나, 어떤 교리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⁴⁾ 철저히 칼뱅은 성경을 청중의 입장에서 가지고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다. 간략하지만 설교에 나타난 칼뱅의 신학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그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이면서도 철저히 인간을 겨냥한 신학이라고 보여 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을 향해’ 서려고 했던 설교자였던 것이다.

81) 위의 책, 104쪽.

82) 위의 책, 104-105쪽.

83) 위의 책, 107쪽.

84) 위의 책.

IV. 설교의 방법(Method of Preaching)

A. 성경에 대한 주해

칼뱅은 기본적으로 설교를 성경에 대한 주해로 이해했다.⁸⁵⁾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설교의 내용과 원천이었기 때문이다.⁸⁶⁾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생명이 되는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을 교회에 부여하셨다.⁸⁷⁾ 또한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사역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셨다.”⁸⁸⁾ 칼뱅은 말씀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의 일반 성도에게 주지 않았다고 칼뱅은 말한다.⁸⁹⁾ 칼뱅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했다.⁹⁰⁾ “마치 아버지가 음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빵을 쪼개고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는 것처럼 바울은 교사들에게 쪼개고 부수는 임무를 맡겼다”라고 칼뱅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석에서 말한다.⁹¹⁾ 또한 칼뱅은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한 말씀을 풀이하면서 내시가 전차에서 읽고 있었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가 아닌 빌립이었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⁹²⁾ 다시말해 칼뱅은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15절의 말씀을 토대로 설교하였다.⁹³⁾ 이러한 성경해석에 대한 칼뱅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다

85)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2.

86) 위의 책.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471쪽.

88) 위의 책, 24쪽.

89) Ronald S.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181쪽.

90) 위의 책, 182쪽.

91) 위의 책.

92) 위의 책.

93) 위의 책, 183쪽.

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임무였다.

그의 설교 형식은 주해에 의해 결정되었다. 칼뱅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절(clause)이나 한 문장의 단위로 설명을 하고 후에 적용을 해 나가는 방식을 따랐다.⁹⁴⁾ 이러한 설교 방식은 오리겐(Origen)이 최초로 여겨지고 있는 고전적인 형태, 즉 성경의 길고 짧은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다.⁹⁵⁾ 어쨌든 칼뱅은 성경 전권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석하는 후기 교부들과 중세 신학 훈련의 전통을 이어받아, 특히 츠빙글리의 전통을 좇아 그의 거의 모든 설교들은 성경 전권에 대한 연결 시리즈 형태로 되어 있다.⁹⁶⁾ 물론 이 형식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칼뱅은 해석을 하는 본문 범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고, 때론 전혀 통제력이 없기도 했다.⁹⁷⁾ 다만 이러한 현상은 요점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흐트러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⁹⁸⁾ 또한 그는 “이 점은 이만큼 해 두지요,” “선지자(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들 보셨지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설교 내용이 산만해 질 수 있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⁹⁹⁾

칼뱅은 주석가로서 인문주의 학자들이 사용했던 수사학적 모든 기법들을 설교를 위해서 동원시켰다.¹⁰⁰⁾ 최근 칼뱅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칼뱅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수사학적 전통에 있었음을 밝혀준다.¹⁰¹⁾ 데이빗 윌리스에 따르면 그는 신학자로서의 칼뱅은 인문주의 수사학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칼뱅 신학에서 조정(accommodation)의 개념이 수사학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⁰²⁾ 인문주의자요 수사학자로서의 칼뱅의 모습은 윌리엄 부스마(William Bouwsma)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조직적인 신학자로서의 칼뱅상 대신에 인문주의 수사학자로서의 칼뱅 상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책 『칼뱅』(*John Calvin*)은 16세기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수사학자로서의 칼뱅의

94)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89쪽.

95)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11쪽.

96) 위의 책, 112쪽.

97)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89쪽.

98) 위의 책, 190쪽 .

99) 위의 책.

100)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2.

101) 박경수, “칼뱅연구의 최근 경향,”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324쪽.

102) 위의 책.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¹⁰³⁾

한편 포드 베틀즈(Ford Lewis Battles)에 따르면 칼뱅은 성경 주석을 함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¹⁰⁴⁾ 왜냐하면 칼뱅은 패러프레이즈(paraphrase)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다.¹⁰⁵⁾ 그런데 이러한 그의 능력은 인문주의 학의 도움과 함께 그의 깊이 있는 신학과 영감, 그리고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베틀즈는 주장한다.¹⁰⁶⁾ 또한 Brevard Childs는 이러한 칼뱅의 차원 높은 해석능력에 대해 물음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칼뱅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 비평 지식의 도달 없이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기술인데, 그것은 본문 안에서의 자신만의 영적이고도 신학적인 반향(resonance)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⁷⁾ 다시 말해서 그는 인문주의와 수사학적 방법을 통해 본문 해석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에도 민감했으며,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칼뱅이 주석가로서 가졌던 본문해석의 일차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고도 사실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데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⁰⁸⁾ 그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한다. 성경 본문이 가지는 사실적 의미라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명백한 의미를 뜻한다는 것이다.¹⁰⁹⁾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칼뱅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에도 루터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Christ, the Lord of Scripture)이라는 원리에 매달린데 반해, 칼뱅은 본문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애쓰지 않았다.¹¹⁰⁾ 이것은 그가 그만큼 수사학적 원리에 의해 문맥에 따라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던 의도라 여겨진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문맥에서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맥에 흐

103) 위의 책.

104)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2.

105) 위의 책.

106) 위의 책.

107) 위의 책.

108) 위의 책.

109) 위의 책.

110)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Calvin's Theology*, 160.

르는 자연스러운 의미의 파악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작업이었다.

그는 원고 없이 설교했으며 직접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부터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¹⁾ 그가 설교 한 편을 직접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았고, 해박한 성경 지식과 광범위한 독서 내용이 항상 머리에 암기되어 있었다.¹¹²⁾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해한 성경을 결국은 주석으로 써 냈다.¹¹³⁾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었으며, 굳이 설교의 준비라고 한다면 설교는 그의 마음을 늘 경건하게 유지하며,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회중과 당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¹¹⁴⁾

설교는 성경에 항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성경의 주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칼뱅.¹¹⁵⁾ 그가 보여 준 성경에 대한 치열하고도 편집증적인 애착은 오직 성경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했던 종교개혁자 다운 진모였음을 그의 설교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B. 주해에 의한 적용

칼뱅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었다.¹¹⁶⁾ 그러면서 그가 설교를 준비하며 늘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중들에게 유익이 될까?”¹¹⁷⁾ 하는 것이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

111)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89쪽.

112) 위의 책.

113) 위의 책.

114) 위의 책.

115) 위의 책, 186쪽.

116)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5.

117)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23쪽.

칼뱅이 생각한 설교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설교는 반드시 적용이 따라야 하고, 성경에서 구체적, 실제적 상황으로 연결되어야 했다.¹¹⁸⁾ 그는 설교에서 옷과 여성의 화장술 같은 문제에서부터 전쟁과 국제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¹¹⁹⁾ 그래서인지 그는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당시 역사 속에서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과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칼뱅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가 설교 때마다 얼마나 적용에 충실하려고 했는지는 다음의 문구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먼저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나타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가 한 시대 특정의 사람들 뿐 아니라 영원히 모든 교회 일반에 유용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CO 51. 145⁴⁻¹⁶)¹²⁰⁾ 칼뱅은 신명기 강해에서도 적용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알게 됩니다...이제 이 백성들에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CO 25. 607⁴³-608³³)¹²¹⁾ 또한 미가서 설교 때의 칼뱅의 말이다. “이제 선지자는 확실히 그 자신의 시대에 봉사를 한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이 특히 오늘날의 시대를 내다보았다고 말합니다.”(SC V 1²⁹⁻³¹)¹²²⁾ 다음은 칼뱅이 디모데후서를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다. “사도 바울이 뜻하는 바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들의 냉담함과 게으름을 고치기를 원합니까?(CO 54.31.²⁹⁻³⁹)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¹²³⁾ 또 다시 신명기 1장의 강해에서도 적용을 염두 해 둔 그의 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장 35절을 설명하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먼저 훌륭한 가르침을 발견해야 합니다...”(CO 25,651²⁵⁻³²)¹²⁴⁾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1장을 강해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이끌어내는 일이 남아있습니

118)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5.

119) 위의 책.

120)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15쪽.

121) 위의 책.

122) 위의 책, 117쪽.

123) 위의 책, 123쪽.

124) 위의 책, 124쪽.

다.”(CO 3. 67¹³⁻¹⁷)¹²⁵⁾ 이처럼 칼뱅의 설교는 항상 적용을 향하여 나아간다. 성경의 바른 주해는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 칼뱅은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시대와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 반드시 적용시키려 했던 것이다.¹²⁶⁾ 그에게 있어 적용이 없는 설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죽어 있는 설교와도 같았다.

설교에 대한 칼뱅의 이러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목회자는 학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¹²⁷⁾ 그는 신명기 5장 23-27절 설교에서 “무엇보다도 학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¹²⁸⁾ 라고 말한다. 목사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견문을 갖추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 목사는 성경을 단지 피상적으로 바라보기 쉬우며, 목사 스스로도 성경이나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리저리 바꾸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¹²⁹⁾ 또한 칼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문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목사는 생명을 주는 지식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⁰⁾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6절 주석에서 “예언하는 일은 성경을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해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금 사용하도록 적용하는 지식을 포함한다.”¹³¹⁾고 말한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4절 설교에서도 그는 적용에 대해 강조하면서 “비록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참된 가르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 있으면 나아가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¹³²⁾ 라고 말하였다. 그는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선하고 신실한 목자라면 성경을 쉽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진지하고 번득이는 예지를 모아야 한다고 디모데

125) 위의 책.

126) 위의 책, 127쪽.

127) Ronald S.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188쪽.

128) 위의 책.

129) 위의 책.

130) 위의 책.

131) 위의 책.

132) 위의 책.

후서 3장 16절 설교에서 이야기한다.¹³³⁾ 바로 목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 생활할 때에 들은 말씀에 입각해 실천하도록 하는, 즉 적용에 주안점을 둔 칼뱅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칼뱅이 설교를 성경본문의 주해와 적용으로 이해했던 것만큼 그의 설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그의 신학을 이루는 뼈대 안으로 옮겨져 왔다.¹³⁴⁾ 그가 썼던 『기독교강요』 역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기위한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할 명분으로 쓰여 졌기 때문이다.¹³⁵⁾ 뿐만 아니라 『기독교강요』는 칼뱅 자신에게 있어서도 일종의 교리적 지침서 역할을 했다. 어쨌든 칼뱅은 적용이 빠진 설교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설교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썼던 강요는 설교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신학에 바탕을 둔 적용적 측면에서 활용되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신학은 확실히 실천적이었다.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청중에게 쉽고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인문주의적이며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설교의 적용은 칼뱅 자신에게 있어서도 물론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란 자신이 깨닫고 철저히 믿었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C. 강해설교

칼뱅의 설교는 원칙적으로 강해설교였다. 이 강해 설교의 형식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크게 성경 구절의 설명과 그 구절에 대한 적용으로 구성되었다.¹³⁶⁾ 그는 구약을 설교할 때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고 신약을 설교할 때에는 헬라어 성경을 보며 구절을 해석해가면서 설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경을 강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 다른 취급 방식을 취했다.¹³⁷⁾ 구약성경 주석에서의 경우 그는 성경 저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133) 위의 책, 189쪽.

134)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18.

135) 위의 책.

136)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13쪽.

137) 위의 책, 126쪽.

특별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기하고 있는 것의 완성을 모르는 것으로 강해했다.¹³⁸⁾ 다시말해 메시아적인 구절들은 메시아니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비추어 강해하였던 것이다.¹³⁹⁾ 특정한 사람들이나 제도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로 해석했는데 그 역시 구약성경 언어를 자기 식대로 설명했으며, 이를 확증하기 위해 신약의 저자를 인용하였다.¹⁴⁰⁾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¹⁴¹⁾ 율기 설교(152번)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율기는 다분히 개인에 관한 기록이었다.¹⁴²⁾ 중요한 것은 칼뱅이 구약 성경의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상황 안에서 적용하기를 추구했다는 점이다.¹⁴³⁾

우리는 칼뱅의 설교가 그가 쓴 주석과 매우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⁴⁾ 설교와 주석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은 위에서도 주지한 바와 같다. 칼뱅에게 있어서 주석과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풀이하고 설명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설교의 주제는 성경의 주제였다.¹⁴⁵⁾ 따라서 그의 전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의 설교 중에서 한 편씩을 골라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쉽다.¹⁴⁶⁾ 그가 율기에서 본문을 택했다면 그는 율기의 본문을 주해하고 적용했을 것이며, 에베소서에서 본문을 택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본문을 주해하고 적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⁷⁾

성경 각 첫 권의 첫 번째 설교는 그 책 주제의 대강을 다루고 시작하였다.¹⁴⁸⁾ 하지만 책에 따라서는 서두를 길게 끌지는 않고 바로 해설로 들어갔다. 그가 채택한 성서 구절의 길이는 한 구절에서 10-12구절로 된 단락 전체에 이

138) 위의 책.

139) 위의 책.

140) 위의 책.

141) 위의 책.

142) 위의 책, 127쪽.

143) 위의 책.

144) 위의 책, 117쪽.

14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92쪽.

146) 위의 책.

147) 위의 책, 192-193쪽.

148)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14쪽.

르기까지 다양했다. 한 구절에 설교 두세 개를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⁹⁾ 어쨌든 칼뱅의 의도는 성경의 각 구절을 강해하는 것인데 보통 문장을 하나씩, 또는 구절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해석한다.¹⁵⁰⁾ 그는 회중에게 이전에 말한 절이 무엇인지 기억을 상기시킨 후에, 앞 절을 그 맥락 안에 놓고 본문 강해를 시작했다.¹⁵¹⁾ 어떤 구절을 강해할 때 그 본문이 다른 구절과 상충되는 듯한 성경 본문은 조화를 통해 그것이 주는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다.¹⁵²⁾ 우리가 강해라고 할 때 문맥상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강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칼뱅 역시도 그에게 있어서 강해란 단순한 주석과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정한다.¹⁵³⁾ 이 말은 칼뱅의 설교 방법이 강해의 패턴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떠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강의와 좀 달랐으며, 각 절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강의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⁴⁾

칼뱅 설교의 본문을 분석해 보면 매우 다양한 본문을 균형 있게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66권이 각각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분명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칼뱅의 성경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각각 주셨다.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한다는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는 주석을 쓸 때에도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놀라울 정도로 성경 본문에 복종하려고 했다.¹⁵⁵⁾ 따라서 그의 설교는 성경의 주제만큼이나 많은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성경 각 본문이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도록 만들었다.¹⁵⁶⁾ 그렇다고 설교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은 칼뱅의 입장에서 당연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메시지를 그는 주로 “믿음”이라고 불렀다.¹⁵⁷⁾ 종교 개혁자답게 칼뱅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

149) 위의 책, 117쪽.

150) 위의 책, 179쪽.

151) 위의 책.

152) 위의 책.

153) 위의 책.

154) 위의 책, 186쪽.

15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93쪽.

156) 위의 책.

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메시지의 초점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 각각 별개의 성경 구절 안에서도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있었다. 칼뱅은 설교를 거룩한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통해 그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다.¹⁵⁸⁾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칼뱅은 늘 강조했다.¹⁵⁹⁾

157)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28쪽.

158)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0.

159)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47쪽.

V. 설교의 스타일(Style of Preaching)

A. 단순해야 한다.(Simplicity)

설교는 분명 대상이 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의미가 없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을 충실하게 읽는다는 것도 교회적으로 읽는 것이며, 목회적으로 읽는 것이라야 했다. 그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듣는 대상인 교회 즉, 청중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설교는 무엇보다도 단순(simplicity)하고, 간결(brevity)하며, 명확(clarity)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⁰⁾ 그는 주석을 씌에 있어서도 저자의 관점에서 보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주해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면서 독자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¹⁶¹⁾

먼저 칼뱅에게 있어서 단순하다는 것은,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디모데후서 12번째 설교에서 말한다.¹⁶²⁾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에 인간의 언어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을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는 “마치 유모가 그의 어린 아이와 함께 말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투른 화법을 쓰시는” 하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칼뱅은 주장한다.¹⁶³⁾ 칼뱅은 이 단순성의 원칙을 말하면서 라틴 수사학자들과 고대 교회신학자들¹⁶⁴⁾을 본받았는데, 이들은 모든 연설이 “적응의 원리”(Principle d'accommodation-연설자는 청중의 이해에 적응한다는 것)에 입각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⁶⁵⁾ 하나님께서

160)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0.

161) Richard C.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6,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34.

162)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8쪽.

163) 위의 책.

164) 칼뱅은 여러 라틴 수사학자들 중에 키케로(Cicero)와 쿠인틸리안(Quintilien)을, 고대 교회신학자들로는 특히 오리겐(Origen)과 어거스틴(Augustin)을 본받았다고 한다.

165) 위의 책.

인간의 능력을 감안하여 하나님 자신을 적응시켰다라는 내용은 포드 베틀즈(Ford Lewis Battles)의 저서 『*Interpreting John Calvin*』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⁶⁶⁾ 이 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적응”의 토대위에서 바라 본 하나님과 인간의 “성경적 초상”(Scriptural Portraits)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치료자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인간은 언어에 연약함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초상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⁶⁷⁾

칼뱅이 설교가 단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조와 단어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그의 설교에서 긴 문장은 각각 주어와 동사로 결합되고,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 짧은 문장의 연속이었다.¹⁶⁸⁾ 칼뱅은 문장을 길거나 거추장스럽게 나열하지 않았다. 그의 문장은 짧고도 힘이 있게 진행되어 나간다. 그의 문장은 한 구절 이상으로 되어진 것이 드물 정도로 단순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리고 왜?”(Et pouquoy?) 혹은 “그러면 왜?”(Mais pouquoy?) 식의 간단한 문장이었다.¹⁶⁹⁾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사적 성격이 짙었고, 진술을 좀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이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¹⁷⁰⁾ 물론 이러한 식의 질문만을 한 것은 아니다. 칼뱅은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 질문 위에 질문을 늘어놓음으로써 청중들을 장악해 나갔다. 칼뱅이 사용했던 단어들 역시 일반적이고도 청중의 입장에서 선택되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칼뱅은 용어를 선택할 때에도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성경에서부터 용어를 가져와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¹⁷¹⁾ 이렇듯 칼뱅은 설교를 할 때 청중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장의 단순성을 생명처럼 강조한다. 청중이 듣지 않는 설교,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166)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ed., Robert Benedetto (Michigan: bakerbooks, 1996), 117-137.

167) 위의 책, 126-131.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을 참고하기 바람.

168)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90쪽.

169) 위의 책, 193쪽.

170) 위의 책.

171) 위의 책, 190쪽.

B. 간결해야 한다.(Brevity)

칼뱅은 설교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칼뱅이 1549년 9월에 파렐(Farel)에게 쓴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간결성은 칼뱅이 좋아했던 특성들 가운데 하나였다.¹⁷²⁾ Erwin Mülhaupt는 칼뱅의 설교가 길다는 것에 대해 “칼뱅은 그의 두 친구 파렐과 비레(Viret)에 비해 길게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45분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⁷³⁾ 칼뱅은 간결성이 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랐으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던 Simon Grynée에게 “주석가의 주된 힘은 평이한 간결성에 있는 것이요, 결코 애매모호함으로부터 올 수 없다.”라고 그에게 보낸 편지의 서문에 적었다고 한다.¹⁷⁴⁾ 칼뱅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디까지나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 외에 여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 같다.

최근에 와서 칼뱅의 주석적 방법에 있어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칼뱅의 주석적 방법론을 가장 잘 요약하면서도 대표할만한 주제로 빠지지 않는 것은 간결성(brevitas)이었다.¹⁷⁵⁾ 칼뱅은 교회를 교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인문주의학과 수사학적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가 수사학적 장치를 사용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고도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¹⁷⁶⁾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문체를 간결하게 하는 것은 성경 저자의 메시지가 독자와 의사소통을 시도함에 있어서 이해를 쉽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었던 설교자 칼뱅에게 있어서 그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청중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했다. 칼뱅이 설교나 주석을 쓸 때 생명처럼 여겼던 이 간결성의 원칙은 오늘 우리가 논문이나 설교문을 작성할 때, 혹은 연설문을

172)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8쪽.

173) 위의 책, 69쪽 각주 30번에서 인용한 것임.

174) 위의 책, 69쪽.

175) Richard C.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6,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52.

176) 위의 논문, 62쪽.

쓸 때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할 것이다.

C. 명확해야 한다.(Clarity)

설교에서 설교자의 의도 혹은 설교의 주제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칼뱅역시도 설교의 주제와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칼뱅은 설교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예화나 문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칼뱅 역시도 설교의 의도를 분명히 기술하기 위해 금언이나 직유 또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설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고도 분명해야 했다. 이러한 직유나 비유는 설교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물론 사용되었다.

칼뱅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강해설교였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곧 설교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칼뱅은 지금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설교자로서 청중들에게 분명히 짚어주어야 했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의 의도가 흐릿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네바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자 했던 칼뱅이었기에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했던 열정은 강렬했을 것이다. 칼뱅은 적어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고 물러섬이 없었다. 타협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즉각 변호하는 책을 쓰거나 고소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설교에서도 명확성이라는 원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칼뱅이 항상 온고했던 사람만은 아니다. 그는 일정한 선 안에서 양보하거나 교회의 일치를 위해 애썼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개혁운동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접촉도 가졌다.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여유가 있었고 자유했다. 말씀에 대한 애착을 넘어 그가 보여준 과감성과 투철함이 없었더라

면 개혁교회의 훌륭한 전통과 신학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D. 친밀해야 한다.(Familiar)

칼뱅은 설교에서 친밀함을 강조했다. 칼뱅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말 중의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친밀하게 되려고 합니다.”¹⁷⁷⁾이다. 여기에서 칼뱅이 사용한 “친밀하게”라는 단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적어도 칼뱅이 성경과 친밀해 진다고 하는 뜻 안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차원을 넘는 명백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자신이 “인격적인”(personal) 관계가 되는 것이었다.¹⁷⁸⁾ 성경의 메시지를 어떤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전집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¹⁷⁹⁾

칼뱅은 성경의 메시지를 회중과 친밀하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 소박한 스타일의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다.¹⁸⁰⁾ 그의 단어는 거의 친숙하고 쉽다. 누구나 들어도 부담이 없는 소박하고 친밀한,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칼뱅의 설교 문체는 형식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그의 말투는 편안하고, 경직됨이 없는 대화체 형식이었다. 그의 설교에서는 ‘or’라는 짧은 프랑스 말을 발견하게 된다.¹⁸¹⁾ 이 단어의 뜻은 거의 없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글썸”(well)나 삼입에 쓰이는 “자”(now)에 가깝다.¹⁸²⁾ 또 자주 “donc”이 발견된다. 이 단어는 “그러면”(then)이나 “따라서”(therefore)와 비슷한 의미이다.¹⁸³⁾ 이외의 것들로 “더욱이,”(au reste) “사실상,”(de faict) “~을 보니, 그래서,”(voila, voici d'autant que) “그리고 그 다음,”(Et puis) “참으로”(voire) 등이 독립된 절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고, 그는 말을 넘길 때 언제나 “~과 참으로

177)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187쪽.

178) 위의 책.

179) 위의 책, 188쪽.

180) 위의 책.

181) 위의 책.

182) 위의 책.

183) 위의 책.

(voire) 관련된”이라고 말했다.¹⁸⁴⁾ 이러한 것들은 칼뱅이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보고 읽어 내려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회중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식의 스타일을 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가 설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들에 있어서도 어려운 신학적 단어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특이하고도 전문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세심히 설명해 나갔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했던 “선택,” “구원,” “죄,” “회개,” “은혜,” “기도,” “심판” 등의 용어는 비록 성경에 나오는 용어지만 일반적인 단어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들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¹⁸⁵⁾ 마찬가지로 “성육신” 같은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고, “양성”(兩性) 등과 같은 용어를 쓸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소박하게 설명했다.¹⁸⁶⁾

E. 평이해야 한다.(Easy & Understandable)

설교는 쉬워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말하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청중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나 채널을 동원해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설교자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인간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그들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칼뱅의 언어는 쉬웠고, 청중의 이해력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히 선택된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청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지어 제네바인들의 특이한 프랑스어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였다.¹⁸⁷⁾ 간단한 예로 Opera Calvinii(Corpus Reformatorum) 46, 574에는 그가

184) 위의 책.

185) 위의 책, 190쪽.

186) 위의 책.

회중들이 소리가 비슷한 두 단어를 혼동하며, 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 분명한 구절이 나타나 있다. “복음은 두 가지 점에서 영 병(un van-가 부르는 키, a winnowing fan)이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부는 르 병(le vent, 바람)이 아니라, 까부르는 영병,(un van) 혹은 체(sieve)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깐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¹⁸⁸⁾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수사적 표현이나 방법을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그가 현대적 감각의 삽화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설교는 은유,(metaphors) 비유,(comparisons) 속담,(proverbial images) 금언(wisdom) 등으로 가득했다.¹⁸⁹⁾ 또한 그는 드라마(drama)나 개인의 말,(personal address) 대조법,(antithesis) 점층법,(gradation) 강세법,(emphasis) 감탄법(exclamations) 등을 사용했으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호소하는 방법(appeals)을, 그리고 반어법(irony) 등도 사용하였다.¹⁹⁰⁾

많은 사람들이 칼뱅의 설교 스타일에 대해 상상하기를 그의 설교는 침울하고, 냉정하며, 딱딱하고, 어두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설교를 그렇게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의 모든 설교가 쉽고 깔끔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길 원했던 사람이다. 개혁은 설득과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인 청중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적응의 개념”(notion d'accommodation)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칼뱅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F. 교육적이어야 한다.(Didactic)

칼뱅의 설교는 가르치는 성격이 짙었다.¹⁹¹⁾ 그는 늘 가르치기 위한 의도

187)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91쪽.

188) 위의 책에서 재인용.

189)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1.

190) 위의 책.

191) 위의 책.

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듯이 그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교육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한다고 했다.¹⁹²⁾ 따라서 그는 설교의 교육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문답법을 사용하였고, 반복적 패턴을 취했다.¹⁹³⁾ 물론 성경을 강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드(C. H. Dodd)에 의하면 아직 칼뱅의 설교와 강의에 있어서 크게 구별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한다.¹⁹⁴⁾ 왜냐하면 칼뱅은 설교와 강의를 모두 다 가르치는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⁹⁵⁾

하지만 강의와 설교에 있어서 문답법을 사용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의에서는 질문(quaestio)과 답변(responsio)에 상응하는 그대로의 질문과 답변의 모양을 취한다면, 설교에서의 더 일반적인 문답법은 반론(objection)과 대답(reply)의 형식이다.¹⁹⁶⁾ 강의에서 주로 나오는 구절은 “그에 대한 대답은 쉽다”(Responsio facilis est)이다.¹⁹⁷⁾ 질문과 답변에 대한 형식은 중세 “*Summae*”¹⁹⁸⁾의 직접적 전통에 기초한다.¹⁹⁹⁾ 즉, 강의에서는 설명의 구조가 일차적이고 단순하다. 그런데 설교의 문답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이때 설교자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상적 적대자를 내세운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요지에 도달하기 위해 설교자는 가상적 적대자와 반론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면서 청중을 유도해 간다. 그래서 설교자는 적대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론적 질문을 계속해 던짐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반론의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본문의 메시지를 이

192)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1992), 47.

193)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1.

194) 위의 책.

195) 위의 책.

196)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144.

197) 위의 책.

198) *Summae*는 다양한 주제나 용어, 그리고 신학, 철학, 교회법 등의 대략을 나타내기 위해 중세 작가들에 의해 쓰여 졌던 참고서적들의 원래 타이틀을 말한다. 이러한 개론서들은 통상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Summae*는 많은 질문들 안에 그들의 주제를 나눔으로써, 긍정과 부정에 의해 주제를 전개시키고 풀어가는 변증적 방법을 사용한다. *Summae*에 관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Summa Theologica*’와 ‘*Summa contra Gentiles*’가 있다. 이상은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ed., F. L. Cross (London : Oxford university, 1974), 1321-1322.

199)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144.

끌어내는 것이다.²⁰⁰⁾ 이러한 칼뱅의 설교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작되지 않은 대화체 형식의 설교, 즉 요사이 각광받고 있는 이야기식설교의 품과도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그는 교육이 갖는 반복적 효과를 무시하지 않았다. 칼뱅은 설교를 할 때 말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청중들에게 짚어주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들추어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 다음, 그 내용의 맥락 안에서 그날의 설교를 전개시켜 나갔다. 성경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그의 설교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반복성은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듯 칼뱅은 설교란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에 강한 집념이 있었다. 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²⁰¹⁾

G. 생동적이어야 한다.(Liveliness)

칼뱅의 설교는 생동적이었다.²⁰²⁾ 그는 생동감 있는 전달을 항상 주장했다.²⁰³⁾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과 악마의 배치를 마치 주인공과 적대자가 서로 대항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내었다.²⁰⁴⁾ 그는 그의 청중들이 친밀하게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극적인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그는 강단에서의 설교 자세에 있어서도 생동감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²⁰⁵⁾ 극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생동감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설교는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칼뱅은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²⁰⁶⁾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생기 있는 방법들을 동원

200) 위의 책.

201) 위의 책, 47쪽.

202)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1.

203) 위의 책.

204) 위의 책.

20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90쪽.

하였다. 이러한 생동감있는 설교는 설교자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이 따른다. 그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말하기를 “순수하고 솔직한 복음 설교에 지나친 두려움보다 더 반대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²⁰⁷⁾ 칼뱅은 실제로 설교자의 자세에 있어서 “용감하게”(brave) 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설교자가 복음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물우물”해서는 안 되며, 꾸밈없이 모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²⁰⁸⁾

칼뱅은 하나님 앞에서 청중을 향해 설교한다고 설교에 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하지만 청중 앞에선 복음의 순수함과 정수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히브리서 4:12)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칼뱅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설교자로서 말씀 또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생동감 있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려고 애를 썼다.

H. 논쟁적이어야 한다.(Polemical)

칼뱅의 설교는 논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²⁰⁹⁾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개혁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에 대항하는 어떠한 무리나 신학사상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의 영감으로 대치하려고 했던 무슬림(Muslims)이나, 환상가들,(Fanciful, 혹은 이들을 칼뱅은 자유파들-Libertins이라고도 불렀음) 니고데모주의자들(Nicodemites)을 공격했다.²¹⁰⁾ 하지만 무엇보다도 칼뱅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맹렬한 논쟁적 자세를 취한 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였다.²¹¹⁾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확신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옹호했는데, 그렇지 못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는 설

206)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1.

207)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9쪽에서 재인용.

208) 위의 책, 재인용.

209)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2.

210) 위의 책.

211) 위의 책.

교에서조차도 “부르짖는 개들,” “비열한 염소들,” “탐욕스러운 여우들”이라고 과감히 응대했다.²¹²⁾

여기에서 우리는 칼뱅에게 있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중언어”(duplex vox)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²¹³⁾ 그는 디도서 주석에서 목사는 두 개의 음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양들을 영접하고 모으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음성이다.” 라고 했다.²¹⁴⁾ 역시 같은 주석에서 그는 설교자의 부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설교자는 “온순한 자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인 동시에 “진리의 적을 공박하고, 반박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자랑과 고집을 혼내주는 자”이기도 하다고 했다.²¹⁵⁾ 목사는 양의 무리에 대해 위임된 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리와 도둑에 대항하여 외치는 또 다른 음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중음성”에 대해 언급한다.²¹⁶⁾ 그는 또 디모테전서 22번째 설교에서도 목사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들을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며, 다른 목소리로는 이리와 도둑들을 양의 무리에서 몰아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중음성에 대해 강조한다.²¹⁷⁾

칼뱅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하는 세 종류의 적대자들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들은 개인주의자들, 영성주의자들, 성서주의자들이었다.²¹⁸⁾ 여기에서 개인주의자들은 만인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하여 목회사역에 대해 희미하게 하는 자들이며, 영성주의자들은 성령에서 출발한 잘못된 개념을 내세워 성경과 설교란 다 불필요하고, 단지 계시와 영감을 추구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이다.²¹⁹⁾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였다. 급진 성서주의자들 역시 칼뱅이 대적했던 자들로서 이들은 진리가 성경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교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²²⁰⁾

212) 위의 책.

213)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71쪽.

214) 위의 책에서 재인용.

215) 위의 책.

216) 위의 책.

217) 위의 책, 71-72쪽.

218) 위의 책, 74쪽.

219) 위의 책, 74-75쪽.

이러한 적대자들을 향해 칼뱅이 취했던 태도로 미루어보아 칼뱅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이며,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의식이 강했는지 우리는 짐작해볼 수 있다. 목회사역을 의문에 부치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부정하며, 설교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칼뱅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그는 모든 개신교인이 다 “손에 성경을 든 교황”이 되게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²²¹⁾ 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한계를 인정했으며, 어디까지나 설교자를 통해, 그리고 설교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는 말한다.²²²⁾ 칼뱅은 교회 안에서의 직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구와 수단²²³⁾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와 직제를 무시한 적대자들에 대해 그는 엄격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설교 안에서 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교자 스스로가 벌이는 논쟁적 양상들, 즉 상상적 적대자를 동원해 청중들을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작업이 칼뱅의 설교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앞²²⁴⁾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다.

I. 진지해야 한다.(Serious & Solid)

칼뱅의 설교는 진지하고 견실하다.²²⁵⁾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6-18절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재밌는 노래들을 듣기 위해서도, 헛되고 무익한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이다.”²²⁶⁾라고 말한다. 칼뱅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 새로운 것이나 사색들 속에서 큰 기쁨을 얻는 것만큼 미묘한 것이라고 믿었다.²²⁷⁾ 따라서 그는

220) 위의 책, 76쪽.

221) 위의 책, 77쪽.

22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60-62쪽.

223) 최윤배(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의 교재 『칼뱅-그의 생애와 사상』 중 331쪽.

224) 앞의 교육적이어야 한다.(Didactic) 부분에서 ‘가상적 적대자’를 내세워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는 칼뱅의 설교스타일을 염두 해두고 말한 것임.

225)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Church*, 222.

226) 위의 책에서 재인용.

설교는 오락적인 것이 아니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희거리로 만들고, 그것들에 의해 자신들을 재창조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말하면서 설교는 수사학이나, 예리한 통찰력이나, 설교의 오락적인 질로부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말한다.²²⁸⁾ 이것은 칼뱅이 설교를 하면서 재미나 유머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응수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할 줄도 알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갖는 본질적인 차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칼뱅은 설교를 할 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도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신학 작품들 중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가운데에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만, 교리를 다루는 책이나 성경주석들, 그리고 설교 가운데에는 자신을 언급하는 데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²²⁹⁾ 칼뱅이 설교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말은 크게 네 가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지자적, 논쟁적, 자서전적, 그리고 신비적 “나”이다.²³⁰⁾ 우리는 이것을 통상 칼뱅의 설교에 나타난 ‘1인칭 화법’이라고 말할 한다. 이 네 가지 범위에서 가장 풍부하게 등장하는 “나”는 선지자적인 “나”와 논쟁적 본문들이다.²³¹⁾

선지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칼뱅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사명, 개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는 설교자에 대한 관념이나 정체성²³²⁾을 언급하면서 “나”에 대한 표현을 쓴다. 그리고 그는 설교가 신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지고,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나”를 언급했다.²³³⁾ 또한 논쟁적 본문들에 있어서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면서 참된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논쟁적인 칼뱅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²³⁴⁾ 그리

227) 위의 책.

228) 위의 책에서 재인용.

229)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121쪽.

230) 위의 책, 180쪽.

231) 위의 책, 181쪽.

232)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설교할 때 칼뱅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확신했다. 즉 자기에게 위임된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는 설교자에 대한 관념이나 설교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라는 표현을 즐겨 썼던 것이다.

233) 위의 책, 121-136쪽.

234) 위의 책, 137-167쪽.

고 마지막으로 칼뱅이 자신을 소개하는 본문들로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이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단순한 인간내지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이다.²³⁵⁾

칼뱅은 설교를 이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곳²³⁶⁾으로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룩하고 진지해야 했다. 설교란 어느 세속적인 잡담이나, 유희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설교자로서 설교에 임하는 태도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뱅이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그의 인간적 모습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칼뱅 뒤로 가려진다.²³⁷⁾

235) 위의 책, 168-179쪽.

23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하)』, 191쪽.

237)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181쪽.

VI. 결론

칼뱅은 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다. 칼뱅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강요』부터 떠올리지만 그가 썼던 『기독교강요』의 원래 저술 목적도 목회적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는 기독교자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적인 삶의 교훈과 유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강요』를 저술했다.²³⁸⁾ 또한 그의 프랑스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교리적 지침을 제공 할 목적으로도 강요를 기록했다.²³⁹⁾ 이렇게 그의 모든 저술 노력들은 그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자의식이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기 이전에, 또한 제네바의 개혁자이기 이전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던 칼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설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미 강조했었다.

그의 설교는 그의 인생 후기에 쓰여진 것들로서 그의 사상과 신학, 그리고 신앙이 한데 어우러진 칼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종교 개혁자답게 모든 개혁과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그의 신념은 설교를 통해 나타났다. 또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해 있던 로마 가톨릭교회와 수많은 적대자들을 상대로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경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것도, 그리고 그에게 적대자들이 생겨났던 것도 결국은 성경과 배치되는 그들의 주장과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에게 있어 교회와 국가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목회자로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말씀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전했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칼뱅은 철저히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설교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즉 청중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적합하고도 명백한 설교를 그는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간결하면

238) Thomas F. Torrance, *The Hermeneutics Of John Calvin*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62.

239) 위의 책.

서도 쉽고, 명백하게 전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적용과 실천에 마음을 썼다. 칼뱅은 강요를 쓸 만큼 기독교 교리에 능통했고 관심이 많았지만, 설교는 교리적으로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일반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으므로 청중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칼뱅은 이러한 청중들 앞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단순한 설교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설교에서 딱딱한 교리나 개념을 말하지 않았고, 성경자체를 인용하여 거기에만 의존하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가며 젖을 먹이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는 강단에 섰고, 청중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개혁자였던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개혁은 설득과 이해를 전제하며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동참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는 리더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의 비전과 의지를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설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위대한 개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청중을 의식하지 않는 설교란 있을 수 없었다.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한 설교는 개혁자로서 손발을 걷어 부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설교란 대중 말씀을 풀이해서 버무리고 내어 던지는 정도가 될 수 없었다. 설교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은 말씀으로 제네바를 목회하고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역사의 한 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가 설교에 임했던 자세는 매우 신중하고도 진지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올바르게 성실하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설교란 어떤 잡담이나 유희가 아니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의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한다거나 무리해서 풀려고 하지 않았다.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미라고 그는 믿었다. 이것을 무시한 성경해석은 본래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벗어나거나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그의 태도에서 그를 딱딱하고, 완고하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몰아 부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따뜻한 인품을 소유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

다. 하지만 그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섰을 때엔 어디까지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신이요, 대리자였을 뿐이다.

칼뱅이 일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매우 어두웠다. 그리고 이국땅에서 목회를 하기에는 많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칼뱅이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강한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었다면 그는 제네바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도 그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신뢰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존 녹스(John Knox)가 예찬했던 대로 그는 제네바를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로 일구어 내고야 말았다.

우리가 설교자 칼뱅을 연구하면서 설교자로서의 그의 모습에 전적으로 동감해야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가 개혁교회의 창시자이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어디까지나 연약한 인간이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분께 순복했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가 칼뱅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투철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자 칼뱅을 이해하고 나서 이 수준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열정, 그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섬겼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국 프랑스와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그의 비전은 그의 생명이 꺼져갈 때 까지 강단에서 선포했던 설교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로서 칼뱅에 대한 이해는 그간에 우리가 그에 대해 인식해 왔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서도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더불어 그가 생각했던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관념, 그리고 설교에 임했던 그의 자세와 방법, 스타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과 함께 소중한 가르침을 제공해 준다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1. 외국서적.

Battles, Ford Lewis. *Interpreting John Calvin*. ed. Robert Benedetto. Michigan: bakerbooks, 1996.

Calvin, John. *John Calv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5.

Dowey, Edward A. *The Knowledge of God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George, Timothy F.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 1990.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1992.

Torrance, Thomas F. *The Hermeneutics Of John Calvin*.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Whitehead, Alfred North.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Free Press, 1967.

2. 번역서적.

Calvin, John. 『기독교강요(상)』.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_____. 『기독교강요(중)』.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_____. 『기독교강요(하)』.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Stauffer, Richard. 『칼빈의 설교학』.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94.

_____. 『인간칼빈』. 박건택 옮김. 서울: 엠마오, 1983.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Parker, T. H. L.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1990.

_____ .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3. 국내서적.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 서울: 세종문화사, 1980.

4. 논문 및 참고교재.

DeVries, Dawn. "Calvin's Preaching."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Gamble, Richard C.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6.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_____.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6.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박경수. "칼뱅연구의 최근 경향." 김인수 편.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 서울: 파피루스, 2004.

이수영. "인간 장 칼뱅." 『교육교회』 통권 106호. (1984,10.)

최윤배. "칼뱅: 그의 생애와 사상." (강의교재)

5. 사전.

Cross, E. A. and F. L. Livingstone.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ed. F. L. Cross. London: Oxford university, 1974.